



‘소문자 비평’에의 지향, 익숙한 비평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작품 분석 통해 이론적 통찰 끌어내기

심진경 | 문학평론가

신수정의 《푸줏간에 걸린 고기》라는 이 낯선 제목의 평론집은 1990년대 문학에 대한 저자의 애정 어린 고백의 기록이다. 저자 자신이 지적하듯이, ‘푸줏간에 걸린 고기’라는 도발적인 제목은 이전까지 낯설게 받아들여졌던 1990년대 문학의 특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며 동시에 새로운 문학에 대한 저자의 열망의 표지이기도 하다. 예술은 언제나 도덕을 넘어선다는 명제에 충실한, 199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감수성의 문학에 부처진 새로운 감수성의 글쓰기. 그 점에서 신수정의 평론은 그 자체로 “개인의 경험을 하나의 의미로 환원시키고 그것의 구체적인 진실을 은폐하는 집단 통념에 대한 거부의 목소리”(7쪽)이자, 기성의 신념이나 견해(doxa)에 반대되는 개방적이면서도 새로운 진술(paradox)이다.

신수정 비평의 핵심은 ‘1990년대적’이라는 데 있다. 그것은 단지 이 평론집에 실린 글들이 1990년대 문단을 장식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신수정에게 1990년대란 새로운 문학장文學場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다. 그녀는 199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형식과 감수성의 작품들의 자리를 정치적·이념적 장場과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문학장의 내적 질서 속에서 찾아준다. 이런 방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개념적 체계를 강조하기 위해 문학 텍스트를 회생시키고 오독하지 않으려는 저자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그리하여, 신수정의 평론에서 개별 작품과 작가에 대한 면밀한 독서를 통해 그려낸 문학장의 내적 질서는 다시 작품에 대한 판단의 척도로 되돌려지고, 작품과 문학 외적 장이 갖는 관계

는 그것을 통해 새롭게 의미화된다. 예컨대, 신수정은 언뜻 서로 다른 노선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박노해와 장정일의 텍스트 속에서 동일한 욕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문학 외적 장과의 관계 속에 나란히 놓음으로써(“다른 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제도교육 기간과 실정법 위반으로 드러나는 기존 체제와의 불화관계”라는 공통점), 흥미롭게도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두 작가의 공통성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수정이 새롭게 그리는 문학장이라는 신체는 분명 기존의 문학계통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모습이다.

표제작인 <푸줏간에 걸린 고기>는 이러한 신수정 비평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글이다. 그녀가 보기에, 램브란트의 <도살된 소>에 그려진 “단 하나의 고깃덩어리”에서 암시되는 인간의 조건, 즉 “이제, 인간은 벌레다, 똥이다”(70쪽)라는 자기 비하적 상상력은 1990년대 문학의 출발점이다. 그녀는 이 글에서 장정일이나 김영하와 같은 소위 신세대 작가들과 정반대 위치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김영현에게서 이러한 1990년대적 정신을 발견한다. 스스로를 벌레로 비하함으로써 “인간으로부터 벌레로의 역진화”(49쪽)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김영현의 <벌레>에서 그녀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관한 서곡”(51쪽)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체가 아니라 ‘욕망하는 기계들’이다. 1990년대 문학에서 신수정이 발견해낸 욕망과 개인이라는 문제들은 이렇게 다시 1990년대 문학을 해석하는 의미 있는 비평적 도구로 되돌려진다.

신수정은 박노해와 장정일에게서 그러한 1990년대적 ‘신인간’ 이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행로를 주목한다. 인간은 욕망덩어리, 고깃덩어리 “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관리, 규율함으로써 공동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박노해)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욕망 속에서 욕망과 하나가 되어 욕망의 흐름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논리(장정일)가 바로 그것이다. 신수정은 ‘구도자’와 ‘유회자’로 대변되는 이 두 가지 욕망의 기획이 정반대의 길이 아니라 기실 “역설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를 부정하는 또 다른 계몽적 기획”(61쪽)일 수 있음을 탁월하게 지적한다. 그것은 여전히 계몽적이고 남성적인 성격의 것이자 기존의 아버지 논리 안에서 악순환하는 유사-아버지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비판을 거쳐 신수정은 박노해나 장정일과는 달리 “무서운 여자가 내리는 처벌의 공포에 시달”(65쪽)라는 아들의 탈-아버지의 문학을 김영하의 소설에서 발견한다. 그것은 “자기 안의 남성성을 거세한 신인류의 탄생”(69쪽)이다. 1990년대 문학

이 낳은 신인류란 결국 여성화된 존재인 것이다. 김영하 소설에 나타나는 거세욕망 속에서 ‘자기 안의 자기(여자로서의 자기)’를 발견하는 신수정의 비평적 통찰이 빛을 발하는 것은, 이렇게 페미니즘이라는 분석틀 속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1990년대 문학장 안에서 여성성의 원리가 발현되는 양상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평론집의 첫 글이 ‘비명과 언어-여성을 말한다’는 것¹⁾이라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1990년대 문학의 지도 속에서 1990년대적 방식으로 묻고 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수정의 비평이다. 그러나 이 평론집에서 다루고 있는 작가들 - 장정일, 김영하, 백민석, 배수아, 은희경, 신경숙, 하성란, 윤호, 유하, 성석제 등 - 이 공통적으로 그 이전까지 홀시되었던 “문학적 타자들”(122쪽)이라는 점은 저자의 비평적 관심이 단순히 “90년대 문학이 무엇이었나를 사유”(128쪽)하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학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124쪽)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대문자 문학”에 대한 거부이자 새로운 문학적 질서에 대한 염원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소문자 문학들’에 대한 저자의 비평적 관심과 애정은, 텍스트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선택한 이데올로기나 사상 체계에 몰두하는 메타적 방식과는 다른 비평적 방식을 택하게 한다. 그녀는 메타언어가 지닌 위선적인 거리감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또 다른 텍스트의 자리로 걸어 내려와서 텍스트가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한다. 신수정의 평론에서 특정 이론을 작품에 들이대는 익숙한 비평방식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수정의 비평에서 우리는 작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결과가 특정 이론의 통찰과 만나게 되는 경우를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다. 예컨대, 백민석 소설을 분석하고 있는 <텔레비전 키드의 유희>라는 글에서, 그녀는 프로이트나 들뢰즈를 들이대지 않으면서도 기원 없는 서사,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없는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명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에서 작품으로’가 아닌, 작품분석을 통해 이론적 통찰을 길어내기. 신수정의 비평이 그 자체로 ‘소문자 비평들’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도 있다. **☞**

이 글을 쓴 심진경은 서강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예술대학 강사, 계간 <파라21>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2003년 대산창작기금 평론부문을 수혜했다.